

# 글로벌 도시 미래 논하다 '전주미래도시포럼'

전주시·전북대·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내달 11~13일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 주제 개최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를 개최한다.

2회째를 맞는 올해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연계 강화 △청년미래업 신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등 도시의 미래와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먼저 시는 미래도시라는 화두를 세계지방정부연합 등을 활용해 국내외 도시와 함께 공유하고 있으나,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전주시정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세미나와 전북대학교가 주도하는 패널 세션에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함께 다룬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논의'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 포스터

또한 올해 포럼의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미래업'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경중 한국의국 어대학교 초빙교수를 교장으로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 이현재 전 배달의 민족 이사,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등 다양

한 멘토들이 참여해 세계 여러 도시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비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의 개막식은 프랑스 외교부 출신 세르주 텔이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 도시국가 모나코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는 행정수장으로 중요한 경험을 쌓아 온 바, 미래도시포럼 주제에 맞는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포럼 개막식에서는 최근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캣의 전주 테마곡 런칭 공연이 펼쳐지고, 전주와 캐나다 퀘벡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로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캣은 올해 포럼에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와 공간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도시와 산업, 문화콘텐츠, 기후·환경 등의 주제로 다양한 발표 등이 이어진다. 세부적으로 서용

석 KAIST 교수와 민경중 교수가 미래 도시산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장동원 교수가 스페인 발바오의 이도이나 포스티고 대표, 안지용 LG 공군연구소장과 함께 도시의 미래 콘텐츠를 논의한다.

기후변화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에 나서며, 백기태 전북대학교 교수와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이 지역의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째를 맞는 전주미래도시포럼이 글로벌 도시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며 "전주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jonju.go.kr/w/fitc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또한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의장과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운영위원장이 29일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각각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과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 적극 의정활동 지역 발전 기여 공로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김원주 운영위원장, 전북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의장과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운영위원장이 29일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각각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과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2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부의장과 김 위원장은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각각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과 전북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

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인정됐다.

최 부의장과 김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라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공공비축미 1962톤 매입

전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산 공공비축미 1962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매입된 매입물량은 지난해 매입량보다 30톤 감소한 1962톤으로, 시는 △건조포대비 1488톤 △산불벼 76톤 △가루쌀 398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역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지난해의 98% 수준이지만, 향후 '쌀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물량이 추가되면 전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산동진 △참동진 △해품 등 일반벼 3품종과 가루쌀 1품종(바로미2)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달에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우선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장선금을 지급한 후 12월 말 최종정산 금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옥기 기자

## 맛과 멋 버무린 '전주 김장문화축제' 열린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달 22~24일 월드컵경기장서 개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2~24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만남의 광장)에서 총 600가족을 대상으로 '2024 전주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맛과 멋을 버무린, 2024 전주 김장문화축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1가족당 전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안전성을 인증받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10kg(절임배추 7kg, 양념 3kg)의 재료가 제공돼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김장문화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축제에서 제공되는 김장배추는 농산물안전성검사를 통과한 20여 농가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 파종해 재배한 배추로, 모든 양념 재료도 지역 농산물이 사용됐다. 또, HACCP 인증을 받은 깨끗한 시설에서 절여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 김장문화축제에서는 행사장 내 전라도 김치 전시 및 홍보·체험 행사를 위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2~24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총 600가족을 대상으로 '2024 전주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사진은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

다. 여기에 부대행사로 △벼 탈기·방아 찧기, 키텔(벼 탈곡후 뒤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 등 가을걷이 농촌 체험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등 전통 놀이 및 한복 체험 △한복인형 만들기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는 쓰레기 없는 탄소중립 축제를 위해 참가자들이 김장통과 고무장갑, 앞치마를 직접 가져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김장문화축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옥기 기자

참가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10kg당 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무더위로 인한 배추가격 상승으로 6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김장문화축제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28일부터 약 2주간 전주푸드마켓 누리집의 기획전 코너에서 100% 인터넷 주문·접수하면 된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금배추' 사태 속 김장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들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공단은 29일 '아이들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이연상 이사장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원수중 이사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최인식 이사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황봉주 이사장을 지목했다. /김옥기 기자



공단은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 강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기부물품 전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아동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도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세액공제 / 담례품 제공  
기부  
농업인  
담례품 구입  
농축산물 공급  
지자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 농협점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김 준 오**

장수농협조합장 **김 용 준**

장계농협조합장 **곽 점 용**